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전용 T커머스 신규도입 필요”

(데이터홈쇼핑)

중기중앙회, 502곳 대상 조사
87% ‘도입’, 13% ‘필요하지 않아’
82% “2개 이상 T커머스 필요” 답변
도입 이유 72% ‘비용절감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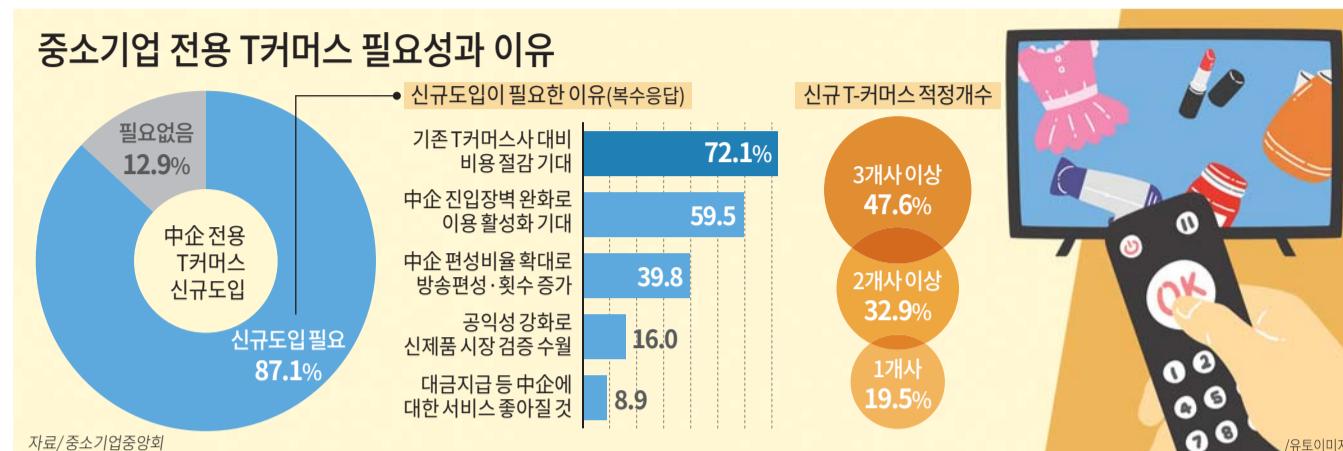
중소기업계가 판로 추가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도입을 강력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왕이면 2개 이상을 도입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반응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신규 도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7.1%가 전용 T-커머스를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12.9%였다.

T-커머스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기존 T-커머스 대비 판매수수료 등 비용 절감 기대’(72.1%)가 가장 큰 가운데 ▲중소기업의 진입장벽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완화로 이용 활성화 기대(59.5%) ▲중소기업 편성비율 확대로 원하는 시간대 방송 편성과 횟수 증가 기대(39.8%) 등이 순으로 많았다.

또 적정한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숫자를 묻는 질문에는 ‘3개사 이상’이 47.6%로 가장 많은 가운데 ‘2개사 이상’도 32.9%에 달했다. 80.5%가 2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1개사’는 19.5%였다.

복수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유로는 ▲1개사 도입만으로는 경쟁에서도 효과 적음(31.2%) ▲홍보 기회 및 판로 확대(28.7%) ▲이용기업의 비교판단을 위한 채널 선택권 보장(22%) 등이 꼽혔다.

이런 가운데 T-커머스 신규 도입 시 이용 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97.6%의 중소기업이 ‘이용할 의사가 있거나(43.2%)’ 추후 검토하겠다(54.4%)’고 답했다. 반면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사한 T-커머스 입점 선택 이유로는 ▲1회 녹화로 방송 부담과 비용이 적음(42.4%) ▲시간 제약이 없어 꾸준한 매출 발생 가능(33.2%) ▲다른 유통 채널에 비해 입점이 쉬움(13.5%) 등의 순이었다.

또 T-커머스 관련 필요한 개선사항(복수응답)으로는 ‘판매 수수료 인하’(75.7%), ‘원하는 방송 시간대 편성 및 방송 횟수 확대’(56.6%), ‘신제품이나 인지도 낮은 중소기업의 입점 조건 완화’(2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낮은 수수료와 높은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의 T-커머스 신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개 이상의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로 수수료 절감 등 경쟁 유도 효과를 높이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테스트베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삼표그룹, 로봇 활용 주차솔루션 구축 나서

계열사 에스피앤모빌리티
기술세미나서 ‘эм피시스템’ 소개

국내 로봇 시장 공략에 나선 삼표그룹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로봇을 활용한 주차 솔루션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삼표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앤모빌리티는 서울 강동 히림종합건축사사무소 본사에서 12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자사가 보유한 독보적 기술인 ‘эм피시스템(MPSYSTEM)’의 특장점을 소개하고, 건축주를 비롯한 설계사·건설사 등 관계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기획했다. 앞서 삼표그룹은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본사 비즈니스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설계회사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방문 세미나를 개최하며 맞춤형 컨설팅 제공하고 있다.

эм피시스템은 AGV(무인운반시스템) 방식으로 주차로봇과 딜리버리시스템이 결합된 기술이다. 차량 무게 3t 이



삼표그룹 계열인 에스피앤모빌리티 임직원들이 히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기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상까지 운반이 가능하다. 특히 99mm에 불과한 납작한 주차로봇이 건물 내 주차 스토리지에서 전후좌우 모든 방향의 진입 이동은 물론 각 층별 수직으로 층간 이동이 자유로워 좁은 공간까지 춤롭게 주차할 수 있다.

에스피앤모빌리티는 삼표그룹이 세계적인 로봇주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셈프트엠’과 손을 잡고 만든 합작법인이다. 주력 제품인 엠피시스템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로봇을 활용한 로봇주차 시스템 설계 및 판매 등 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태국, 멕시코 등 해외에서 로봇주차 시스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에스피앤모빌리티 장성진 대표는 “эм피시스템을 통해 정체된 국내 자동차 주차 기술에 새로운 매력을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물류창고, 드론 택시 주차시설(UAM) 등에서도 엠피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유통센터, 스마트물류 지원사업 실시

총 250개 소상공인 모집·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스마트물류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8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스마트물류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물류 부담 완화와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상품 보관, 재고관리, 포장, 배송 등 물류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풀필먼

트 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업참여가 최종 확정된 소상공인은 지정된 풀필먼트 센터에 자사 상품을 입고하고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풀필먼트 센터에서 상품을 포장, 배송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배송에 필요한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고 고객은 더욱 빠르게 상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올해 ‘스마트물류 지원사업’은 티몬과 큐익스프레스의 협업을 통해 총 250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

하는 소상공인은 큐익스프레스의 통합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에 티몬의 ‘T프라임’ 상품으로 마케팅 지원을 받는다.

또한 스마트물류 전용 온라인 기획전, 참여 소상공인 전용 할인쿠폰도 지원 예정이다.

중기유통센터 이태식 대표는 “소상공인 상품의 온라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물류 관련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스마트물류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업무 편의 개선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홍보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도로교통공단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일 소진공에 따르면 두 기관은 ‘3고’ 등 체감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 및 정책 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양측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전국단위 라디오 방송인 TBN한국교통방송을 통해 소진공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인터뷰, 불법 사금융 근절 캠페인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방송할 예정이다.

또한, 소진공의 상권정보데이터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정보데이터 등을 공유하여 상권분석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협업사업을 실시 할 예정이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약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

장 상인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흥보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책이나 지원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흥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소진공은 ‘정보보안 경영시스템(ISO/IEC 27001:2022)’과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IEC 27701:2019)’ 국제표준 인증을 동시에 취득하고 정보보안 전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김승호 기자

에이스침대, 신제품 ‘루나토-4’ 출시

날개형 헤드보드, 볼륨감 쿠션 조화

에이스침대가 올인룸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 ‘루나토-4(LUNATO-IV)’를 출시했다.

8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루나토-4는 은은하게 저물어가는 밤하늘의 달빛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제품으로, 이탈리아어로 초승달을 뜻한다.

우아한 곡선의 날개형 헤드보드와 볼륨감 있는 쿠션의 조화로 엘레강스한 침실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승호 기자

신제품은 취미 생활, 업무 등 수면 공간을 넘어 휴식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는 올인룸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디자인했다.

요람처럼 몸을 감싸 안는 형태의 헤드보드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 적당한 볼륨감과 비례감을 갖춰 시각적인 중심까지 잡아준다. 헤드보드 등받이는 기대어 쉬기에 최적의 각도로 제작됐으며, 여기에 부드러운 촉감의 원단과 적절한 탄력의 쿠션이 어우러져 완벽한 휴식 환경을 제공한다.